

노보 노디스크, 초지속형 기저 인슐린과 식사 인슐린 복합제 '리조텍' 국내 출시

리조텍, 초지속형 기저 인슐린과 식사 인슐린을 하나의 펜에 담아 당뇨병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 높여

김태완 기자 승인 2017.11.15 00:35:40

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(사장 라나 아즈파 자파)은 14 일 자사의 당뇨병 치료신약 리조텍 플렉스터치주(Ryzodeg, 성분명: 인슐린 데글루텍/인슐린 아스파트)를 본격 출시했다고 밝혔다.



리조텍은 초지속형 기저 인슐린 트레시바(성분명: 인슐린 데글루텍) 70%와 식사 인슐린 노보래피드(성분명: 인슐린 아스파트) 30%로 구성된 최초의 인슐린 복합제다. 리조텍은 기저 인슐린과 식사 인슐린을 병용 투여하는 기저-식사(Basal-Bolus) 요법보다 주사 횟수가 적어 당뇨병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. 만 2 세 이상의 소아와 청소년 및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 가능하며, 만 65 세 이상 고령 환자, 신장애 및 간장애 환자 등 특수 환자군에게도 처방이 가능하다.

리조텍의 주 성분인 인슐린 데글루텍은 24 시간 균일한 혈당 조절을 통해 혈당 변동폭을 최소화하고, 저혈당 위험을 크게 낮춘 초장기 지속형 기저 인슐린이다. 또 다른 구성 성분인 인슐린 아스파트는 식후에 상승하는 식후 혈당을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조절하는 초속효성 인슐린이다. 이 두 가지 성분이 결합된 리조텍의 1 일 1~2 회 투여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.

리조텍은 총 2,414 명의 제 1 형 및 2 형 당뇨병 환자 대상 5 가지 주요 연구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. BIAsp 30(Biphasic insulin aspart 30)과 비교한 BOOST® 임상 프로그램의 Premix I 임상 연구 (447 명의 제 2 형 당뇨병 환자 대상) 결과, 리조텍 투여 환자군에서 공복혈당(FPG)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0.52mg/dL 감소하였으며, 전체 저혈당 발생률을 BIAsp 30 대비 32% 낮추고, 야간 저혈당 발생률은 73% 낮췄다. 투여 용량에 있어서도 리조텍이 BIAsp30 과 같은 목표 혈당을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용량이 BIAsp30 대비 11%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.

또한 기저-식사(Basal-Bolus) 요법(인슐린 데글루텍 1 일 1 회+인슐린 아스파트 1 일 2~4 회 투여)과 비교 분석 결과, 리조텍을 1 일 2 회 투여 환자군이 1 일 최소 3~5 회 투여하는 기저-식사(Basal-Bolus) 대비 더 적은 주사 횟수로 효과적인 당화혈색소(HbA1c) 강하 효과를 보였다.

한국 노보 노디스크 라나 아즈파 자파 사장은 "이번 리조텍의 출시를 통해 국내 당뇨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"며, "트레시바와 노보래피드 두 제품의 장점이 결합된 리조텍은 당뇨병

환자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 이와 함께 "오랜 기간 당뇨병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해 온 당뇨병 치료 선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국내 당뇨병 환자와 의료진에게 더 나은 치료제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"이라고 전했다.

한편, 리조텍은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와 미국,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80 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받았으며, 국내에서는 올해 9 월 보험급여를 받았다.

의료 정보 김태완 기자 kmedinfo@hanmail.net